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The Factors Affecting the Wage of Home Care Workers: Focusing on Incheon Metropolitan City

하석철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Seok Cheol Ha(skclha@ifwf.or.kr)

요약

본 연구는 인천시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306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개인 특성과 근로(환경) 특성, 지역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 특성으로는 교육 수준과 자격증(경력) 유무가, 근로(환경) 특성은 고용 형태와 근로 시간, 서비스 제공 유형이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은 장기요양의 공급과 수요 측면을 나타낼 수 있는 요인들(재가요양보호사 100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 수, 급여이용자 100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 수, 재가요양보호사 1명당 급여이용자 수) 모두 요양보호사의 임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인천광역시 | 재가요양보호사 | 임금 수준 | 수요 및 공급 | 지역 특성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the wage of home care workers in Incheon. For this study, 306 home care workers in Incheon were analyzed. Personal factors, work environmental factors, and regional factors were entered in the analytic model. Results showed that education level, license, employment status, work hours, and service types were associated with the wage of home care workers. Also, factors related to the supply and demand of long-term care (i.e., the number of long-term care facilities per 100 care workers, the number of long-term care facilities per 100 benefit recipients, the number of care workers per benefit recipient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wag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 keyword : | Incheon Metropolitan City | Home Care Workers | Wage Level | Supply and Demand | Regional Factors |

I. 서론

연구 고령화에 따라 전문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중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1-5].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대두되었던 처우개선비 논란은 요

접수일자 : 2018년 11월 02일

수정일자 : 2018년 12월 24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2월 24일

교신저자 : 하석철, e-mail : skclha@ifwf.or.kr

양보호사의 낮은 임금 수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포괄임금제로서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이 함께 포함되는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그것의 구성요소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수준 또한 매우 낮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고[6], 보상체계는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는 고객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다[7]. 또한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도 보고된다[8]. 이와 같이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그것의 기초를 이루는 임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 수준이 다수의 연구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9-12],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질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요양보호사의 임금과 지역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13]가 진행되었으나, 연령과 현 근무지의 경력 이외의 개인 특성과 근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보다 세분화하고 다차원화하여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요양보호사 임금의 영향 요인을 개인 특성과 근로(환경) 특성, 지역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과 더불어 본 연구는 인천시 소재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재가 요양보호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다음의 이유를 통해 그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인천시는 수도권의 대도시이면서 지역적 및 행정적으로 도·농 복합적 성격을 갖는 도시이다. 따라서 인천시를 통해 산출한 결과는 도시와 더불어 농·어촌 지역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의 고령화 속도가 7개 특별시 및 광역시 중에서도 매우 빠른 점[14] 역시 본 연구가 갖는 의의에 무게를 더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이 시설요양보호사에 비해 낮으나[12][15],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재가

급여의 비중이 큰 것을 고려한다면²,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그 중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고 그것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때 영향 요인은 요양보호사의 개인 특성과, 근로(환경) 특성, 지역 특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것이며, 도·농 복합적 특성을 갖는 인천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II. 문헌 검토

1. 요양보호사의 임금 산출

장기요양기관은 공단부담금과 수급자의 일부부담금의 합을 의미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17]. 급여 유형에 따른 인건비 지출 비율은 [표 1]과 같다.

표 1. 급여 유형에 따른 인건비 지출 비율

(단위: %)

구분		인건비 지출 비율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59.6
	노인공동생활가정	63.3
	주야간보호	47.5
재가급여	단기보호	57.9
	방문요양	86.4
	방문목욕	49.1
	방문간호	58.8

자료: 보건복지부[17]

위와 같은 인건비에는 기본급여와 수당 등을 포함하는 임금과 장기근속 장려금 및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등이 포함되며, 장기근속 장려금은 근무 기간과 급여 유형에 따라 4-7만 원 가량 지급된다[17][18]. 요양보호사의 임금에 기초가 되는 재가 및 시설급여의 산

1) 통계청[14]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살펴보면, 인천시의 2018년 대비 2045년의 노인(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증가율은 183.3%이다. 이는 울산시(214.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2) 2017년 말 기준 재가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는 전체 급여 이용자 중 82.4%를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인천시의 경우에는 84.0%의 비율을 나타낸다[16].

정기준과 급여액, 장기근속 장려금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2]와 [표 3]과 같다.

표 2. 재가 및 시설급여 산정기준 및 급여액 (단위: 원)

구분	산정기준	급여액 범위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당 제공시간 13,540(30분 이상) -51,710(240분 이상)
	방문간호	34,330(30분 미만) -51,810(60분 이상)
	방문목욕	방문횟수 40,840(차량 미이용) -72,540(차량 내 목욕)
	주·야간 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 24,870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5등급) -63,070 (12시간 이상, 1등급)
	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 42,810(5등급) -52,830(1등급)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55,780(3-5등급) -65,190(1등급)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 48,720(3-5등급) -56,960(1등급)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18]

표 3. 근무 기간 및 급여 유형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단위: 원/월)

구분	금액	
입소형	36개월 이상-60개월 미만	50,000
	60개월 이상-84개월 미만	60,000
	84개월 이상	70,000
방문형	36개월 이상-60개월 미만	40,000
	60개월 이상-84개월 미만	50,000
	84개월 이상	60,000

주: 입소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18]

이상의 자료들을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로 시간과 경력 등이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인천시 재가장기요양의 공급 및 수요 현황

이하에서는 인천시의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재가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급여이용자의 현황을 살펴보겠다. 인천시의 10개 군·구별 재가장기요양기관과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수, 전체 장기요양급

여이용자 수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재가기관의 경우 남동구가 181개소로 10개 군·구 중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낸다.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부평구가 4,527명으로 가장 많으며, 장기요양급여이용자 수 역시 부평구가 6,113명으로 가장 많다.

표 4. 인천시 지역별 재가장기요양의 공급 및 수요 요인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재가장기요양기관 수(A)	재가요양보호사 수(B)	급여이용자수(C)
인천시	870	17,998	32,820
중구	38	990	1,439
동구	27	900	1,135
미추홀구	143	3,349	5,399
연수구	72	1,777	2,881
남동구	181	4,161	5,855
부평구	160	4,527	6,113
계양구	101	3,361	3,127
서구	119	2,909	4,849
강화군	25	522	1,740
옹진군	4	16	282

주: 급여이용자 수는 시설 및 재가급여 전체의 급여이용수급자 수를 의미하며, 급여종류별 중복을 배제한 것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16]

표 5. 공급 및 수요 요인 간 비율

구분	A/B	A/C	C/B
인천시	4.8	2.7	1.8
중구	3.8	2.6	1.5
동구	3.0	2.4	1.3
미추홀구	4.3	2.6	1.6
연수구	4.1	2.5	1.6
남동구	4.3	3.1	1.4
부평구	3.5	2.6	1.4
계양구	3.0	3.2	0.9
서구	4.1	2.5	1.7
강화군	4.8	1.4	3.3
옹진군	25.0	1.4	17.6

주1: A/B=재가요양보호사 100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 수
주2: A/C=급여이용자 수 100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 수
주3: C/B=재가요양보호사 수 1명당 급여이용자 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16]

이어서 [표 5]는 각 지역의 요양서비스 공급과 수요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요인들 간의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비율별로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한다. 특히,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 타 구(區)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지역별 비율의 차이는 각 지역의 장기요양 노동시장에서 요양보호사가 차지하는 위치와 가치가 상이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이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임금 또한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한다. 부연하자면, 먼저, 재가요양보수 대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수(A/B)는 그 비율이 높을수록 요양보호사의 가치가 클 수 있고, 이에 따라 임금 수준 역시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급여이용자 수 대비 재가장기요양기관 수의 비율(A/C)은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 내 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심해져 인건비 지출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중국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요양기관 간의 요양보호사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재가요양보호사 수 대비 급여이용자 수의 비율(C/B)은 같은 결과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가능케 한다. 먼저, 높은 수준의 비율 즉,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상황은 요양보호사의 가치를 증대시켜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다. 또한 높은 구성 비율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 집단(pool)이 크음을 의미하여 요양보호사의 임금 증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실태나 분포,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특성과 근로(환경) 특성, 지역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개인 특성의 경우 연령이 낮고 근무 연수가 길수록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15]. 두 번째로, 근로(환경) 특성의 경우에는 시간제 임금 구조를 갖는 재가요양보호사의 특성에 따라 근로 시간이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된다[15]. 또한 기관의 운영 주체에 따른 인건비 차이를 살펴본 연구[11]는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에 비해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의 인건비 수준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비영리 기관과 사회적 경제 조직(협동조합, 사회적 기

업 등)이 요양보호사의 처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결과 또한 존재한다[19].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인건비 차이를 살펴본 연구[11]의 경우, 급여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경우 농·어촌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근로 시간과 인건비 수준이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 반면, 주·야간 보호는 대도시가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비해 시간당 인건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기보호는 중소도시의 인건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제시된다[11]. 지역 요인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이용자 대비 요양보호사 수, 인정자 대비 요양보호사 수, 노인인구 비율 등을 변수로 이용한 연구[13]에서는 지역 요인이 요양보호사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나 지역적 특성이 임금 수준에 대한 타 변수들의 영향력에 변화를 줌으로써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을 보여준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두 가지 자료를 함께 이용하였다. 우선, 요양보호사의 개인 특성과 근로(환경) 특성은 인천시 요양보호사의 근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2018년도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였다³. 다음으로 지역 특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조사 자료의 표본(506명) 중 재가요양보호사 327명을 추출하고 결측치 등의 문제를 조정하여 최종 306명으로 구성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요양보호사의 개인 특성은 연령, 교육 수준, 자격증(경력) 여부, 요양보호사 경력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연령은 만 나이를 사용하였고, 교육 수준은 중학

3)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에서 연구과제[9] 수행을 위해 수집한 조사 자료이다.

교 이하의 학력과 고등학교 졸업 학력,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구분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변수로 설정하였다. 자격증(경력) 여부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전 자격증(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또는 요양관련 1년 이상의 경력 여부를 통해 측정하였다. 만약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1을 부여하였고, 어떠한 자격증이나 경력도 없었던 경우에는 0을 부여하였다. 요양보호사 경력은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총 경력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근로(환경) 특성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주체와 고용 형태, 월 평균 근로 시간, 서비스 제공 유형, 서비스 제공 부담도로 구성하였다. 우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주체는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일 경우 1의 값을 부여하였고 그 이외의 주체(법인, 지자체)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일 경우에는 1로,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0으로 설정하였다. 월 평균 근로 시간은 일주일 평균 근로 시간에 4를 곱하여 월 단위 근로 시간을 산출하였다. 서비스 제공 유형은 방문급여만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하고, 방문급여와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거나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만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 부담도는 서비스 대상자 수와 대상자의 요양등급을 고려한 계산식을 통해 변수를 구성하였다.

지역 특성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재가요양보호사 100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 수, 급여이용자 100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 수, 재가요양보호사 1명당 급여이용자 수를 변수로 구성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또한 농·어촌 지역과 그 외의 지역 간 요양보호사의 임금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재가요양기관이 강화군과 옹진군에 소재해 있는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하고,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	설명
개인 특성	연령	만 나이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ref.), 전문대졸 이상
	자격증(경력) 유무	유=1, 무=0
	요양보호사 경력	월 단위 경력(개월)
근로 (환경) 특성	요양기관 운영 주체	개인=1, 법인 및 지자체=0
	고용 형태	정규직=1, 비정규직=0
	근로 시간	월 평균 근로 시간
	서비스 제공 유형	방문급여만=1, 그 외=0
지역 특성	서비스 제공 부담도	서비스 대상자 수 및 요양등급을 고려하여 산출
	농·어촌 여부	농·어촌=1, 비농·어촌=0
	재가요양보호사 수 대비 재가기관 수	재가요양보호사 100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 수
	급여이용자 수 대비 재가기관 수	급여이용자 100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 수
	재가요양보호사 수 대비 급여이용자 수	재가요양보호사 1명당 급여이용자 수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 및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고,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SAS 9.4를 이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 특성을 간략히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먼저, 연령은 평균 55.9세이었으며, 임금과 부적(negative)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갖는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과 중학교 졸업 이하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교육 수준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력은 평균 41.1개월이었고, 현재 연구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주체는 개인이 207 사례로 법인이나 지자체보다 많은 수를 보였다. 운영 주체에 따른 임금 수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46.4%, 비정규직이

4) 서비스 제공 부담도는 다음의 식을 통해 산출하였다.

서비스 제공 부담도=(1등급 대상자 수×5)+ ... +(5등급 대상자 수×1)/√총대상자수

5) 농·어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법률들은 농·어촌을 '읍·면의 전 지역'으로 정의하는데, 강화군과 옹진군은 행정구역이 읍과 면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53.6%의 비율을 보였고,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구 대상자인 재가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근로 시간은 약 115.1시간이었고, 서비스 제공 유형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의 방문급여만 제공하는 인원이 78.4%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임금은 방문급여만 제공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거나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만 제공하는 경우)보다 더 적었다. 서비스 제공 부담도는 평균 3.8이었고 부담도가 높을수록 임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비농·어촌 지역에 있는 비율이 95.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재가요양보호사 100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수는 평균 4.1개이었고, 급여이용자 100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수는 2.7개이었다. 마지막으로 재가요양보호사 1명당 급여이용자 수는 1.7명으로 나타났다.

표 7.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06)

구분	M(SD), 명		F/t/r
	세부 특성	임금 수준	
연령	55.9(6.8)	-	-.11*
교육 수준	중졸 이하(n=30)	108.6(43.0)	5.97**
	고졸(n=232)	106.7(43.9)	
	전문대졸 이상(n=44)	131.7(45.4)	
자격증(경력) 유무	유(n=78)	124.0(44.0)	-3.13**
	무(n=228)	105.9(44.1)	
요양보호사 경력	41.1(32.9)	-	.07
운영 주체	개인(n=207)	114.3(44.7)	-2.14*
	법인 등(n=99)	102.6(44.1)	
고용 형태	정규직(n=142)	132.7(41.4)	-9.11***
	비정규직(n=164)	91.2(38.2)	
근로 시간	115.1(60.5)	-	.69***
서비스 제공 유형	방문급여만(n=240)	98.9(43.3)	16.42***
	그 외(n=66)	152.6(13.7)	
서비스 제공 부담도	3.8(2.0)	-	.42***
농·어촌 여부	농·어촌(n=13)	108.6(33.1)	.15
	비농·어촌(n=293)	110.6(45.2)	
재가기관 수 /재가요양보호사 수	4.1(2.5)	-	.01
재가기관 수 /급여이용자 수	2.7(4)	-	-.09
급여이용자 수 /재가요양보호사 수	1.7(1.9)	-	.02

* p < .05, ** p < .01, *** p < .001

2. 재가요양보호사 임금 수준의 영향 요인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8]과 [표 9]와 같다. 먼저, [표 8]을 통해 재가요양보호사의 개인 특성과 근로(환경) 특성이 임금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개인 특성만을 가지고 임금 수준을 살펴본 [Model I]에서는 교육 수준(전문대졸 이상)과 자격증(경력) 소지가 임금에 정적인(positive)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개인 특성과 근로(환경) 특성을 함께 살펴본 [Model II]에서는 고졸에 비해 중졸 이하일 경우 임금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일 때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 시간이 길수록 임금은 증가하였고, 방문급여만을 제공할 경우 임금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표 8. 재가요양보호사 임금의 영향 요인 I

구분	Model I		Model II	
	B	SE	B	SE
Intercept	122.79***	22.76	61.53***	16.86
연령	-.41	.40	.07	.27
중졸 이하	2.98	8.69	-11.72*	5.91
전문대졸 이상	19.15*	7.82	8.13	5.31
자격증(경력) 유	10.93†	6.21	5.58	4.23
요양보호사 경력	.12	.08	.08	.05
개인 운영 기관	-	-	-.84	3.81
정규직	-	-	19.40***	3.75
근로 시간	-	-	.39***	.03
방문급여만 제공	-	-	-18.93***	5.16
서비스 제공 부담도	-	-	.60	1.05
F	3.91**		41.82***	
R ² (Adj R ²)	.06(.05)		.59(.57)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위의 분석들에 더하여 지역 특성 변수를 추가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⁶. 먼저, 지역 특성으로 재가요양보호사 수 대비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급여이용자 수 대비 재가장기요양기관 수를 투입한 [Model III]의

6) [표 4]의 경우 ‘재가요양보호사 수 대비 재가장기요양기관 수’ 변수와 ‘재가요양보호사 수 대비 급여이용자 수’ 변수의 상관관계(r=.99, p<.001)가 매우 높아 분석 모형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고졸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일 경우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자격증(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금 수준이 높으며,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시간 역시 그 수준이 높을수록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문급여만을 제공할 경우 그 외의 경우보다 임금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재가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지역의 재가요양보호사 100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수가 많을수록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급여이용자 수 100명당 재가요양기관의 수가 많은 경우 역시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Model IV]는 지역 특성으로 급여이용자 수 대비 재가장기요양기관 수와 재가요양보호사 수 대비 급여이용자 수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고졸보다 전문대졸 이상일 경우 임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격증(경력)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임금이 많은 모습을 보였다. 또한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고 근로 시간이 긴 경우 임금 수준은 증가하였다. 더불어 방문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았다. 지역

특성의 결과는 현재 근무 기관의 소재 지역이 급여이용자 수 100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수가 많을 경우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가요양보호사 1명당 급여이용자 수가 많은 경우에도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인 특성과 근로(환경) 특성, 지역 특성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들이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개인 특성으로는 교육 수준과 자격증(경력) 소지 여부가 임금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환경) 특성의 경우에는 고용 형태와 근로 시간, 서비스 제공 유형이 임금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은 재가요양보호사 100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 수와 급여이용자 수 100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 수, 재가요양보호사 1명당 급여이용자 수가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에 정적인(positive)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기초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개인 특성의 경우 요양서비스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양보호사 경력이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근로를 위한 유인 기제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장기근속 장려금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경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으로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요양지도사의 도입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승급 경로와 임금 개선을 위한 접근으로 논의겨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2].

근로(환경) 특성에서 방문급여만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결과를 보인다. 이는 시급제의 임금 체계를 갖는 재가요양보호사가 방문급여만을 제공

표 9. 재가요양보호사 임금의 영향 요인 II

구분	Model III		Model IV	
	B	SE	B	SE
Intercept	-6.78	24.61	-6.35	24.64
연령	.21	.27	.22	.27
중졸 이하	-2.95	6.22	-3.39	6.20
전문대졸 이상	9.71 [†]	5.17	9.64 [†]	5.18
자격증(경력) 유	7.49 [†]	4.14	7.25 [†]	4.13
요양보호사 경력	.08	.05	.08	.05
개인 운영 기관	.25	3.76	.61	3.76
정규직	21.64 ^{***}	3.70	21.71 ^{***}	3.70
근로 시간	.41 ^{***}	.03	.41 ^{***}	.03
방문급여만 제공	-19.46 ^{***}	5.05	-19.28 ^{***}	5.05
서비스 제공 부담도	.79	1.02	.77	1.02
농·어촌	-20.74	13.56	-22.99	14.06
재가기관 수 /재가요양보호사 수	2.71 ^{**}	.88	-	-
재가기관 수 /급여이용자 수	16.51 ^{**}	6.04	18.00 ^{**}	6.10
급여이용자 수 /재가요양보호사 수	-	-	3.79 ^{**}	1.27
F	35.75 ^{***}		35.65 ^{***}	
R ² (Adj R ²)	.61(.60)		.61(.60)	

[†] p < .1, ^{**} p < .01, ^{***} p < .001

할 경우 이동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시간적 자원을 소비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즉,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방문급여 제공 요양보호사가 이동 시간이 적거나 이동이 없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농·어촌 지역 변수의 회귀계수를 눈여겨볼 만하다. [표 9]를 보면, 요양기관 소재지가 농·어촌일 경우 임금 수준에 대한 회귀계수가 음수로 크게 나타난다. 이는 농·어촌 지역이 긴 이동 거리를 가짐으로써 재가요양보호사가 다수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고 이에 따라 임금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논의[13]와 맥(脈)을 함께 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물리적인 이동거리가 긴 환경이나 이동에 따른 비용이 큰 경우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13]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수가를 일정 부분 인상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대상자의 수와 요양등급을 함께 고려하여 산출한 서비스 제공 부담도는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산정에 있어서 서비스 대상자의 요양 등급이 고려되지 않음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으로 분석에 투입한 재가요양보호사 수 대비 재가장기요양기관 수와 급여이용자 수 대비 재가장기요양기관 수, 재가요양보호사 수 대비 급여이용자 수 모두 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요양보호사의 임금 역시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요양보호사가 돌봄 노동시장에서 갖는 가치가 임금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며,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 풀(pool)이 요양보호사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임금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요양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간 요양보호사 임금의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크게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임금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갖는다. 더욱이 관련 요인을 개인 특성과 근로(환경) 특성, 지역 특성으로 구분하여 접근한 점은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먼저, 보다 명확한 분석을 위해 지역과 기관, 개인을 층화하여 접근하는 위계선형회귀분석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례 수의 제약으로 인해 해당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한 접근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또한 표본의 한계로 인해 시설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대하고자 한다.

* 본 논문은 2018년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연구과제(「인천시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 및 지원방안(2018-04)」)의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작성한 것임.

참고 문헌

- [1] 김고은, 박연주, 고은주, “감정노동자인 요양보호사의 경험에 관한 연구: 재가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12호, pp.103-119, 2014.
- [2] 김지혜, 김석준, 이준영, 이옥진, 오가영,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제17권, 제4호, pp.15-23, 2011.
- [3] 신경희, 남우근, 윤민석, 최지원, 최경숙, 윤지영, 류임량, 장보현, 임지민, *서울시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보건복지자원연구원, 2012.
- [4] 장창수, *대전시 요양보호사 근무실태와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2015.
- [5] 조준모, 이상희, 정연택, 이재성, 김원정, 박명숙,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사)한국노사관계학회·성균관대학교 HRD센터

터, 2009.

[6] 이윤석, 문승권, “요양보호사의 업무환경 및 제도가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32권, 제1호, pp.305-321, 2012.

[7] 남기민, 권현숙,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지역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58권, pp.253-279, 2012.

[8] 권현정, 홍경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9권, 제1호, pp.33-57, 2017.

[9] 하석철, 양지훈, 인천시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 및 지원방안,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2018.

[10] 오세근, “요양보호사 수발노동의 실태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에 관한 연구: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여부 판별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제20호, pp.101-136, 2010.

[11] 김진현, 임은실, 배현지, 서동민, 정수용,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건비 수준과 분포에 관한 실증분석,” 장기요양연구, 제3권, 제2호, pp.96-121, 2016.

[12] 김정엽, 이재모, “요양보호사의 근무현황과 정책적 제안에 관한 연구: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비교,”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27호, pp.133-165, 2018.

[13] 홍경선, 이용갑, 경승구, “입소시설·재가기관 요양보호사의 임금과 지역요인과의 관계,”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pp.310-325, 2016.

[1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시도,” <http://kosis.kr>, 2018년 4월 11일 추출, 2017.

[15] 경승구, 장소현, 이용갑,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요양보호사 근로실태 및 임금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6호, pp.339-350, 2017.

[16]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www.nhis.or.kr, 2018.10.5.

[17]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0호),” www.mohw.go.kr, 2018.10.31.

[18]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상담 사례집(6장 장기요양 수가 및 급여기준),” www.longtermcare.or.kr, 2018.10.31.

[19] 송미영, 김희경, 안정선, “노인 돌봄 기관의 요양보호사 처우에 대한 사례연구: 지역 및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제4권, 제2호, pp.57-80, 2015.

[20] <http://www.law.go.kr/법령/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2018.11.1.

[21] <http://www.law.go.kr/법령/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2018.11.1.

[22] 보건복지부,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www.mohw.go.kr, 2018.11.1.

저 자 소 개

하 석 철(Seok Cheol Ha)

정회원



- 2016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7년 2월 ~ 2018년 2월 :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2018년 2월 ~ 현재 :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연구위원

<관심분야> : 아동 돌봄, 노인 돌봄, 세대 간 관계